05 아빠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 리더 만들기

클래식과 친해지기

1.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1) 1810년 무렵 베토벤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쓴 곡

2) 악보 분실로 베토벤 사후 40년 뒤에 발견됨

3) 원래는 '테레제'가 본명이고 베토벤은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지만,
23세라는 나이 차와 신분 차이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함

4) 이 곡의 제목이 '엘리제'가 된 이유는 베토벤이 악필이어서 출판사에서
글씨를 잘못 읽어 '테레제'가 '엘리제'로 바뀌게 됨

아빠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스피치

1. 스토리 수첩 만들기

1) 예를 들어 장소라는 주제가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갔던 곳이나 앞으로 여행 가고 싶은 곳들을 나눠봄

2) 장소와 음악을 기록
아이와 함께 스토리텔링 기본기를 익힐 수 있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음

2. 음악 프레이즈 체험

1) 주제 멜로디가 나올 때마다 아이와 하트를 그려보거나
사랑의 총알을 날린다거나 동작을 만듦
★ 스피치를 할 때도 주제가 있는 것처럼 음악도 자주 나오는 멜로디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음악이 나올 때 피아노를 치듯이 아이가 시늉할 수 있게끔 함
★ 이렇게 하면 아이가 리듬감도 개발이 되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어 우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3. 스토리텔링은 왜 해야 할까?

1)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느끼게 해 줌

2)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3)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4)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발견과 자기만족을 경험할 수 있음
★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연설문을 발표할 때
공약을 내세우거나 지식과 정보를 나열한 의견을 말하기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스토리를 통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친구들에게도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